

## 사노피 파스퇴르(주), 팬데믹 속 건강한 겨울 나기 위해 서울시 노숙인 및 쪽방 주민에게 무료 독감예방접종 진행

- \* 2011년부터 10년째, 노숙인 등 주거 취약계층 총 46,100명에게 무료로 독감백신 접종
- \* 코로나-독감 동시유행 위기 속에서 전년도보다 일정 앞당겨 진행... 안전한 접종 환경 조성에 만전
- \* 의료 기관 및 봉사단 8곳이 자원봉사로 참여해 10월 11일(일)부터 오는 11월 말까지 서울시 노숙인 시설과 쪽방촌에서 접종 실시

서울 - 2020년 10월 13일 - 글로벌 헬스케어기업 사노피(Sanofi)의 백신사업부인 사노피 파스퇴르(주) (대표 파스칼 로빈, Pascal Robin, 이하 "사노피 파스퇴르")가 올해로 10년째를 맞은 '노숙인 및 쪽방 주민 대상 무료 독감예방접종'에 나선다.

사노피 파스퇴르는 2011년부터 자사 사회책임 프로그램인 '헬핑핸즈(Helping Hands)'를 통해 매년 가을 독감예방접종 시기에 맞춰 노숙인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무료 독감예방접종을 이어 오고 있다. 사노피 파스퇴르는 올해 서울시와 부산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기부한 4가 독감 백신 박씨그리프테트라 4,000도즈를 포함해, 10년간 총 46,100도즈 상당의 독감 백신을 무상으로 제공해 오고 있다.

올해 노숙인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독감예방접종은 사노피 파스퇴르, 서울시, 서울의료원 등 총 15개 기관의 협력으로 진행된다. 사노피 파스퇴르가 무상으로 지원하는 4가 독감 백신 '박씨그리프테트라'를 서울의료원 소속 나눔진료봉사단 의료진 등 자원봉사단 5곳과 서울역 무료진료소, 영등포 무료진료소, 시립동부병원 의료진들이 노숙인과 쪽방 주민에게 직접 접종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독감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전년도보다 약 2주 가량 앞당겨 접종에 나섰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당부되면서 안전한 접종 환경을 마련하고자 방역에 만전을 기했다. 접종은 11일(일) 남대문쪽방촌을 시작으로 서울시 노숙인 시설과 쪽방촌 별로 '소규모 찾아가는 방문접종' 방식으로 약 2달 간에 걸쳐 진행된다.

*사노피 파스퇴르(주)의 파스칼 로빈 대표는 "코로나 19로 인해 올해는 특히나 독감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안전한 접종 환경을 조성하고자 기존 접종 방식을 코로나 19 시대에 맞춰 새롭게 정비하기도 했다"며 "코로나 19로 더욱 혹독한*



겨울을 보내야 하는 우리 사회의 이웃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글로벌 백신기업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 이라고 전했다.

한편, 사노피 파스퇴르는 2018년 진행한 ‘헬핑핸즈 프로그램의 효과 및 사회적 기여도 평가’를 통해, 장기간 진행한 노숙인 독감예방접종 활동으로 노숙인들의 신체·심리·사회적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 받은 바 있다.

사노피 파스퇴르는 자사의 사회책임 프로그램인 ‘헬핑핸즈’를 통해 노숙인 건강 증진 활동과 함께 노숙인의 사회적 관심 제고 및 사회적 자립 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노숙인 및 주거 취약계층 대상 ‘독감예방접종 활동’을 비롯해, ▲노숙인 인식개선 기회를 마련하고 노숙인들의 취약한 의류 수급 실태를 알리기 위한 시민 참여 헌 옷 모으기 행사 ‘더 빅드림(2012~2014년)’ ▲노숙인 사회적 자립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인 ‘빅프렌즈(2015~2016년)’ ▲거리의 천사들 팀과 함께한 거리 노숙인 대상 ‘혹한기 야간 배식 활동(2012~2013년)’ 등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대상으로 백신 접근성 및 의료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 # #

[사진과 캡션]

사진	캡션
	<p>사노피 파스퇴르(주)가 주거 취약계층의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서울시, 서울의료원 등 총 15 개 기관과 협력해 11 월 말까지 노숙인 및 쪽방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독감예방접종을 진행한다.</p> <p>사진은 12 일(월) 서울역 코레일 주차장에서 진행한 독감 백신 접종 모습.</p>
	<p>사노피 파스퇴르(주)가 서울의료원 소속 나눔진료봉사단 등 8 개 의료 기관 및 봉사단과 함께 11 월 말까지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독감예방접종을 진행한다.</p> <p>사진은 12 일(월) 서울역 코레일 주차장에서 진행한 독감 백신 접종 모습.</p>

## About Sanofi

사노피는 인류가 당면한 건강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글로벌 바이오 제약기업으로, 질병을 예방하는 백신과 통증 및 고통을 경감시키는 혁신적인 의약품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소수의 희귀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수백만의 만성질환 환자 모두를 위해 일하고 있다.

전세계 100개국 10만여 직원과 함께 사노피는 과학적 혁신을 헬스케어 솔루션으로 구현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www.sanofi.co.kr](http://www.sanofi.c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Sanofi, Empowering Life